

문 대통령 “꺾고 짧은 방역 강화... 빠른 일상회복 위해 전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꺾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적극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초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민생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정망을 더욱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공급망, 물가, 가계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됐다”면서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실세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다”며 “우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다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

회의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우리 정부 마지막이 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임기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고, 실세 없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불어 잘 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해왔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걸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많은 위기와 도전을 헤쳐오며 우리 경제는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 주며,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천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되었고, 이 추세는 최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 소득에서 것처럼 분배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조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재정의 분배 개선 기능이 크게 높아진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재정 기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포용적 회복이 되어야만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포용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한편으로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이 함께 눈부신 성장세를 이끌고 있고, 제2 벤처붐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K-미래차, K-바이오, K-조선, K-뷰티 등 많은 K-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정부와 국민, 기업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입니다.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꺾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투자와 소비,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빠른 회복과 도약의 기초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신산업 성장과 벤처 활력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구조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 안정망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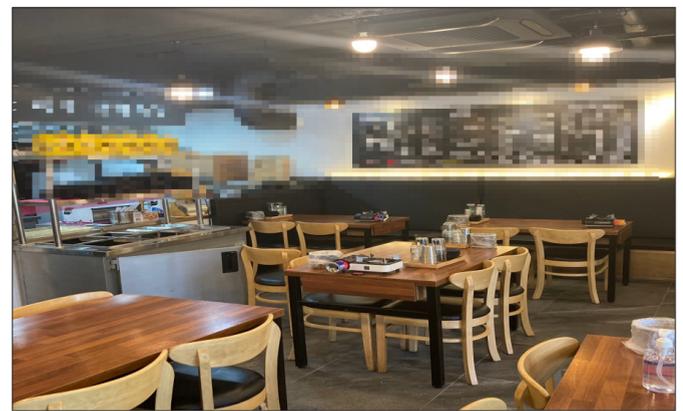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추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320만명에 100만원씩...매출감소 일반사업체에는 내년 1월 초 지급

방역물품지원금은 29일부터...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



작으로 내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과 함께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중기부는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빠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도 기존 집합근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044-204-7856 최만식기자

SKY대 합격 및 수능만점 필수영어 2개월 단기 완성
예비 高 1,2,3 대상
가장 어려운 영어 가장 쉽게 배우는 비법!
수강료 후불제
skymt.kr
지금 바로 skymt.kr을 검색해 보세요
SKY대 쉽게 가는 길! SKY멘토스쿨 02-897-2050



politics
정치

2 문화매일
2021년 12월22일 수요일

화성시의회 의장, 석우동 완충녹지 도로 변경 관련 간담회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장은 지난 17일 오후4시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석우동 완충녹지 도로 변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석우동 4-8번지 완충녹지를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에 대한 간담회로 화성시의회 의장 및 도시정책과, 산림녹지과,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동탄 1동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석우동 4-8번지 공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지원시설과 주거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녹지로 계획되었으나, 도시지원시설이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되어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완충녹지로 남아있어, 도로 단절로 인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특히 공사차량 진입에 어

려움이 있어 인근 주거시설 건축에 제약이 있다는 불만이 올해 6월부터 제기되었다.

원유민 의장은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위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를 논의하였다. 도시정책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의 종류, 규모, 위치가 결정되어 준공된 지역으로 해당 원인과 기능이 해제 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림녹지과의 협의 의견은 해당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와 같은 공해 및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해당 완충녹지가 당초의 기능 및 목적을 상실했다면 녹지의 일부를 도로로 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간담회를 마치고 원유민 의장은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미관 및 시민들의 생활권내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타당하게 설계되었겠지만,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바, 관계 공무원들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유연한 사고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변경 시에도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남 영상산업 허브 '전남영상위원회' 설립한다



관광·문화 전남의 영상산업 중심 역할을 할 전라남도 영상위원회가 설립된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 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문화·산업 전방을 홍보하는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상산업 발전과 도민의 영상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

김영만기자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가시화 '환영'



전라남도의회 김한중 의장은 20일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연구소로 확대 추진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라남도를 방문해 센터 설립을 장성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명칭을 연구소로 하며 3만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980억 원 규모가 투입될 것을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2.5배 사업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1부 4센터 28과로 구성해 독립적인 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센터 설립의 진행을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 질병청과 T/F팀을 구성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김한중 의장을 중심으로 연구소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한중 의장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는 장성군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도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이다"면서 "센터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한중 의장은 지난 11월 질병관리청이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인력과 사업규모 확대 등을 들어 국비 44억 원을 불용처리하자 의장 명의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고 11월 24일에는 전라남도의회의원 전체 명의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같은 달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심뇌혈관센터의 조속한 설립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해 중앙부처에 전달하도록 했고 11월 24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방문, 정은경 청장을 만나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 추진을 건의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만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3% 증액으로 최종 5,450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으로 집행부 안 대비 3%인 157억원을 증액시켜 최종 5,4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증액 내역으로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중 '남북울놀이대회', '청소년공연예술',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6억9천만원을 증액했고, 신규사업인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과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각각 9천만원, 4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영화영상산업 육성, 경기도형 콘텐츠뉴딜, 만화에너지화 콘텐츠산업 활성화사업에 11억 1천만원을 증액했고, 신규사업인 '경기무지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과 '도단위 예술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사업에 각각 10억원, 9천3십만원을 증액했

다. 특히 최만식 위원장이 2019년부터 추진해왔던 예술인 기본소득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술인장착지원금(장착수당)을 신규사업으로 16억원 증액했으며, 2022년 5개 시군(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에 매칭사업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육분야로는 '도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 방역 및 AI스포트 중계시스템에 10억원, 체육진흥 사업으로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체육진흥공모 확대에 10억원, 종목별 리그 활성화 지원에 1억원을 증액했다.

한편 체육진흥기금의 경기도 독립야구리그 지원 중 감독 및 코치수당으로 1억원을 증액하고, 2022 세계장애인역도대회에 2억을 증액해 코로나방역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중 하계체전과전비 지원으로 5억1천6백만원, 장애인체육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에 2억3천만원을 증액했다.

관광분야에서는 신규사업인 '옛길 따라 만나는 문화체험' 사업과 '경기근현대문화유산 순례' 사업에 각각 2억원씩 증액했으며, '행정계곡 관광명소화 추진' 사업에 2억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중 도내 관광업계 생태계복원, 경기플랫폼구축에 2억3천5천을 증액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재정 3%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202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을 집행부 안 대비 157억 증액시켜 코로나로 힘든 문화·예술·체육·관광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충청권 시도의회의회장,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동 협약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과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1일 충남도의회 국제회관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충청권 시·도의회 공동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분권을 실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충

청권 4개 시·도의회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상공회의소·기업연합회 등의 동향 및 시·도민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힘을 모을 예정이다.

충청권에서는 1968년 충청은행이 설립됐지만 외환위기로 사라진 뒤 23년간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이 부재한 실정이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과의 금융 간극이 확대되고, 지역 서민금

융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피가 막힘없이 흘러야 하듯이,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경제 전체가 활성화하려면 이와 같은 자금이 원활히 흘러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의 정치권은 물론, 554만 충청인 모두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하나 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홍제천 망원나들목 드디어 착공·주민숙원 해결

김기덕 시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망원동 주민숙원인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 착공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망원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 계약을 마포구가 20일 체결함에 따라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8대 서울시의원 시절인 2010년부터 추진해왔으나, 매칭예산(구·시비)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좌초됐던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사업을 끈질기게 서울시에 요구하여, 투자심사,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 통과 및 예산 사업비 반영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10여년 만에 망원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셈이다.

김기덕 의원은 2018년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를 10대 의회에 다시 들어와 서울시에 적극 요구하며 서울시비 예산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2020년 3월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비를 반영시킨 바 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와 마포구청 치수와 등 공직자들과 수심 차레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예산증액반영을 통해 까다로운 조건들을 조율 및 관철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결과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이 조건부 가결되었다.

이에 지난 6월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공사비 8억원의 1차 공사비를 추경에서 반영시켜, 12월 20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그동안 망원동 주민들이 월드컵공원과 마포농수산물

시장을 갈 때와 성산동 주민들이 한강이나 망원시장 등을 찾을 때 마포구청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동불편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로 이동거리와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무척 기쁘고 의정활동의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일은 물과 관계된 사업으로 사업비보다는 투자심사와 수자원위원회 통과 등 우려곡절을 거듭하면서 이루어 낸 쾌거로 꺼져가던 롯데상암쇼핑몰을 살려낸 일 못지않게 주민과 함께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망원2동 출신 구의원님의 역할과 도움에 크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진행되는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B=4.5m, H=3.0m, L=39.0m)의 총사업비는 총 6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오는 2023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김성원 국회의원,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주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제천, 경기 동두천·연천)이 21일,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치러진 국정감사이니만큼 '국감무용론'이 불거졌지만 이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을 위한 활약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됐다.

최만식기자

대구시의회, 과학기술진흥사업 효과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진흥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지도, 지역사회개발, 특허심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태손 의원은 "해를 거듭하며 과

학기술진흥사업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성과관리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고, 연구개발 사업들의 운영에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들과 관련 사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종재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 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 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등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 브 이 언 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02) 2612-2959
팩 스: (02) 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지하철역 내에서 진료·약 처방 편리하게...공휴일, 늦은 저녁 등 취약시간 의료서비스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약국이 문 닫는 의료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대를 조성하고, 임대사업업을 통한 수익으로 공사의 재정난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역삼역, 종로3가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속하는 역이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역 인근에 대형병원도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지하철역 내에 의원·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2021년(1~11월) 기준, 종로3가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60,188명(1.3,5호선 합계)이다. 역삼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57,850명이다.

'메디컬존'은 지하철역 역사 내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종전에 지하철 역사 상가는 건축물대장을 보유하지 않아 의원·약국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고시함에 따라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없

지만 제정·고시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자가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관리하면 역사 내에 의원·약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2021년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 내에 의원 3개소, 약국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는 의료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에는 의원·약국 등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년 7월 감사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12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을 고시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그동안 지하철역 내 의원 입점에 반대해 온 지역 보건소와의 행정심판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하순, 역삼역(395.02㎡), 종로3가역(248.9㎡) '메디컬존'을 일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두 역사를 의료시설 집단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의사나 약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자가 모집되면 구체적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역삼역,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메디컬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메디컬존'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신규 수익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스마트해진 강동!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

강동구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스마트 횡단보도의 일환으로 음성안내 보조장치(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교차로알림이(어린이보호구역 3개소)를 설치했으며, 이번에는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림이를 신규 및 추가 설치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은 보행신호와 연동시킨 LED바닥형 보행 신호등으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바뀔 때 보도에 설치된 바닥신호등도 함께 바뀐다.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보행자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결과, 학교 및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보행사고 위험성이 높은 횡단보도에 일정 간격으로 유도등을 매립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어린

이보호구역 등 32개소에 설치했다. 또한 이면도로 교차로에 차량의 접근을 감지하는 교차로알림이를 교통신호 위험성이 높은 비신호 이면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설치했다.

'교차로알림이'는 주간에는 상시 황색 점멸로 운영하여 운전자에게 교차로 진입 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켜 차량의 안전운행을 돕고, 야간에는 교차로에 접근한 차량의 전조등을 감지하여 차량 좌·우측 방향에 적색 전조등이 점등되어 차량의 접근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알려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더욱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여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마포구, 비대면 시대 똑똑한 여행 '관광명소 VR전시관' 개관

마포구가 지난 20일 '마포구 관광 명소 VR전시관'을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VR전시관 개관은 PC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여행을 망설이는 관광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VR전시관은 35개의 마포구 대표 관광명소를 ▲힐링 ▲문화역사 ▲젊음 ▲도전 4개 분야로 나누어 294개의 VR콘텐츠로 구현했다.

▲힐링 명소는 15개소로 일명 언트릴파크라 불리는 '경의선숲길공원', '역세폴로 유명한 '하늘공원' 등이 있으며, ▲문화역사 명소로는 국내 유일 비잔틴풍의 교회 건물인

'성니콜라스 대성당'와 석유 보관하던 곳을 문화로 재운 '문화비축기지' 등 9개소가 준비돼 있다.

▲젊음 명소에는 젊은이들의 놀이터 '홍대걷고싶은거리', SNS 핫플(Hot Place) '망리단길'을 포함한 9개소가, ▲도전 명소에는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와 '월드컵경기장'이 준비돼 있다.

접속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통해 접속하면 된다.

VR콘텐츠는 360도 회전과 확대가 가능해 입체감 있는 영상으로 마포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와 연계된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예비 관

객이나 마포구 관광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VR콘텐츠로 최신화하고, 서비스 기능 보완 등으로 VR콘텐츠 고도화를 추진해 관광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VR전시관은 관광업체가 관광객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수립으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용산구, 이태원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 협약 체결

"무너진 이태원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구가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맞아 이달부터 스타샵(Star #Shop)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구는 최근 스타샵 프로젝트 참가자 10명을 1기로 선발했다.

주인공은 이강목(50), 이상두(28), 조경주(42), 조진희(30), 박현정(34), 김현우(37), 김균하(38), 최원식(35), 문정숙(65), 서일영(33) 씨로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업종은 일반음식점 6곳, 서비스업 2곳, 소매업 2곳. 일반음식점에서는 수제맥주, 해조류, 한우, 해산물, 타파스(스페인 음식), 와인 등을 판다. 이태원의 '맛'을 한층 다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은 네컷 사진, 남성 전용 미용실(비버샵)로 엠제트(MZ)세대 취향을 겨냥했다.

소매업장에서는 친환경 생활용품, 비건 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온 오프라인으로 판다.

헬리콥터를 맞아 이미 1호점(홍대네트 이태원점)을 오픈한 이상두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게는 모두 내년 초까지 오픈할 예정이다.

1호점 창업자 이상두씨는 "이태원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위드코로나'로 분명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며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이태원 재건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스타샵은 구 상권 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구는 지난 4월 해밀톤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 지역 상인들과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지난4일용산구청대회의실에서열린이태원스타샵프로젝트협약식에서성장현용산구청장(가운데)과사업참가자들이함께포즈를취했다

▲소상공인 재난위기 극복 지원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공실 활용 스타샵 프로젝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등 추진을 약속했다.

스타샵 프로젝트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됐다. 구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참가자 모집 방침을 세우고 23명의 소상공인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후 1차(서류)·2차(면접) 심사를 진행, 창업자 역량, 창업 실현 가능성, 창업 준비 노력도 등을 따져 지원 대상을 정했다.

기존 이태원 폐업상인들에게는 일부 가점을 줬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참가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맺고 각종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구는 창업일로부터 1년 간 가게 임대료를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창업 전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자금을 최대 5천만원씩 빌려 주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스타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며

"능력 있고 매력적인 소상공인을 발굴, 이태원 전성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이후 "내달 초 스타샵 프로젝트 2기 참가자를 모은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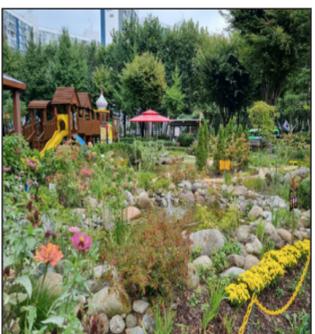
이태원관광특구는 서울시내 6개 관광특구 중 하나다. 이태원·한남동 일대 38만3292㎡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상가, 음식점, 관광호텔 등이 밀집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 기지에 주둔한 미군들을 상대로 기념품 장사를 했으며 1970년대 초반 121후송병원이 미8군 영내로 들어오면서 상권이 확대, 1997년 서울시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이른바 '클럽 발 확산'으로 상권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올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 구는 최근 구청사 지하 주차장(지하 4~5층 374면)을 24시간 개방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노원구, '2021 푸른도시 서울상' 대상 포함 4개 부분 수상 쾌거



서울 노원구가 지난달 12일에 열린 '2021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민관협력 부분 대상과 서울 시민이 주는 특별상을 포함해 총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푸른도시 서울상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개인 및 공동주택, 골목길 등 생활 공간 속 정원을 조성해 도심 환경을 개선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고 있다.

민관협력 부문 대상을 차지한 노원구 상계주공15단지 '행복한 정원'은 주민의 참여도와 경관 및 녹화

수준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또한 상계1동 주민자치회가 조성한 정원이 장려상을, 중계동의 사회 복지시설인 '더 홈'의 정원이 새싹상을 각각 수상하면서 노원구 내 3곳의 정원이 4개의 상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일상 속 녹지 휴식 공간을 추구하는 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노원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휴식이 있는 힐링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상계주공15단지를 포함한 총 12개 단지에 휴(休)가든 사업을 실시했다. 단지 별로 설계와 시공비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조성 계획부터 설계, 시공, 식재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 결과 단지 내 유휴공간이 아름다운 녹지공간이자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또한 조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마을정원사를 권역별로 배

치하여 주민들의 정원 유지관리를 돕고, 공동체의 결속과 주민 활동에 도움을 주어 정원문화 확산과 녹지에 대한 관심 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휴식처로서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풍부한 녹색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집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권역별 힐링 타운을 조성했다. 특히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은 노원구 주민이 선정한 '2021 내 삶에 힘이 되어준 구정' 1위로 뽑히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생활 속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휴식을 마주할 수 있도록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휴가든 사업을 비롯한 녹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round-up
종합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관악구 난곡·난향의 시간을 기록하다~레코드 난곡' 마을기록 전시회 개최

관악구가 오는 24일까지 난곡·난향 도시재생의 기록을 담은 '레코드 난곡' 마을기록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반영해 24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인 난곡로24길 일대 2개 전시관에서 진행하며, 행사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해 도시재생의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성과와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결과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전시1관은 지난 5년간 난곡·난향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부터 현재까지 마을의 사진과 기록, 구술 등으로 꾸며졌으며, 도시재생을 통한 난곡·난향마을의 변화과정만 아니라 주민들이 꿈꾸는 난곡난향의 모습도 전시하고 있다.

도시재생 성과, 난곡브랜드 알리기, 난곡 포토존 운영, 도시재생 영상 상영, 도슨트(docent)와 함께 하는 난곡 도시재생 해설 프로그램 등 '난곡의 시간'을 기록한 다채로운 내용들로 구성돼있다.

전시2관은 난곡동을 형상화한 3D 모델링 테이블에 난곡을 표현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을 담은 소원트리 '내년의 난곡에게'를 운영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연말을 기념해 나와 내 동네를 추억하는 난곡마을 스노우볼 제작 워크숍도 진행한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번에 입장 가능한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성과를 공유하는 마을전시회를 통해 주민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높이고 사업에 동참한 주민의 소감을 공유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C

capital area

수도권 I

4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포상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우수 공직자 11명을 2021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누구나 적극행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선발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시민과 주요사업 추진부서로부터 추천받은 11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시민제감도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외부전문가 심사(1차)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투표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득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처음으로 대면심의로 진행되었다.

"전국최초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보훈정책 추진"(안준열 주무관),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등 총 11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표창과 함께 실적가산점, 포상휴가,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인천시는 금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이례적으로 모든 신청 사례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박남춘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극행정 이슈화되고 박남춘 시장도 민선7기 4년차에 접어들며 적극행정의 인사사고 반영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적극행정은 행정전반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시는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병철 혁신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성과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이다"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2021년 하반기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천형 적극행정 시민을 웃게한다.

인천광역시

- 1 전국최초 보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천형 보훈정책 추진
- 2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등 총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
- 3 "방통부(도매망) 실시간 모니터링자 사각지대 최소화"
- 4 문화재단(구(구)민간)의 가치재산을 통한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형성
- 5 청년 스타트업, 인천시가 민간과 손잡고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시킨다
- 6 인천 공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천형 공영경제 초석을 다진다
- 7 "인천 이북 육아전담관"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8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 공공기관을 위한 인천시 공공기관을 위한 토론회
- 9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노년친목을 실시한다
- 10 인천, 항공청(인천공항) 마레를 열다
- 11 영남행사를 통한 화재초기 진압 인력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

오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TF팀 운영 대응

오산시는 지난 15일 고농도 계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TF팀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사각지대에 있는 미세먼지 발생원까지 저감하기 위하여 8개 부서 10개의 팀 14명으로 TF팀(팀장: 환경사업소장)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TF팀의 담당팀장 10명이 회의실에 모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 농업, 수송, 청소, 산업, 건설, 에너지, 실내공기질, 취약계층보호 등 3개 분야 21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각각 성과지표를 만들고 홍보 방안과 저감대책을 논의했다. TF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선제 예방적 저감조치와 시민건강보호 강화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성과에 대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도 시는 계절관리

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건설사업장 11개소에 대해 협약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만들어요! CLEAN FRIDAY 오산"이란 주제로 건설현장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해 매주 금요일 오후 자발적으로 외부공정 지양, 먼지 발생공정 2시간 단축 동참 희망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12월중 취약계층(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출망 설치 지원, 미세먼지 쉼터 설치, 미세먼지 및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에 대비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TF팀장 이명순 환경사업소장은 "미세먼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재난으로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도 에너지 절약, 1회용품 안 쓰기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10주년 기념 '만남의 날' 개최

광명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회장 이상재) 주관으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10주년을 기념하는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이상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장, 후원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10년간의 사업 및 실적보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부와 나눔에 동참해준 개인, 기업, 단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위기극복 희망기부 릴레이'에 시민 동참이 이어져 올해 1,232건, 2억1,200만원이 모금됐고, 2011년 4월 출범이후 195억 원의 누적모금액을 달성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범시민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후원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복지사

업비, 후원물품 등 맞춤형으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위기상황 속에도 돌봄과 나눔으로 따뜻한 광명을 만들어 주신 후원자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 분들의 헌신과 사명에 부응하여 광명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하겠다. 소중한 후원으로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자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였다. 후원자가 없었다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도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며 당연히 모금액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항상 투명하고 신뢰감 있게 후원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며, 후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성남시, 창업기업 8개사와 간담회...상생협력 힘 모아

성남시가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나섰다.

시는 성남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관내 창업기업의 우수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21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성남 대표 창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기업별 우수제품 전시 및 체험 행사도 진행했다. 우수시 창업기업은 "성남시 창업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인 여러분과 성남시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관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생·협력 모델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이날 참석한 성남 우수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온라인 홍보자료로 제작해 성남시 전역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연중기획으로 버스쉼터에 성남 창업센터 입주기업 지면광고를 게재해 기업홍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용인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고사리손부터 정성 보태



용인시는 20일 처인구 시립치린어린이집이 시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통해 6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기탁금은 시립치린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마련했다. 치린어린이집은 지난 2011년부터 10번째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은주 원장은 "코로나19로 무인 바자회를 열게 되어 아쉬웠다"며 "고사리손들이 함께 모은 정성이 적게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백군이 용인시장은 "아이들이 소중한 물건을 바자회에 내놓고, 그 수익금을 기

부하는 착한 선순환에 감동했다"며 "예쁜 마음을 좋은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회원 75명도 2089만 3230원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백군이 용인시장을 비롯 강명희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최미영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장, 정순옥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처인구 지역장, 박지영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수지구 지역장, 서현정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기흥구 지역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이날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명은 관내 기초생활수급

은수미 성남시장, 관내 환경개선 노인복지시설 방문

성남 은수미 시장은 20일 오후 중원구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과 분당구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먼저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을 찾은 은 시장은 "이곳 복지회관을 건립된 후 20여년이 흘러 시설 노후화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작년 약 1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며 "예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화사하고 따뜻하게 변했다.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신다. 앞으로 이용하는데 안전하고 불편이 없도록 계속 살펴보고"고 말했다.

2002년 건립된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은 현재 31개 프로그램, 1일 약 3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으로 작년 11월 준공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경로식당을 전

면 리모델링(급수배관, 주방 등 집기류, 바닥과 천장 마감재 교체 등)하고, 목욕탕 손잡이 설치 등 어르신 맞춤형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탈바꿈했다. 또한 강당(다목적실)의 기존 목재 칸막이를 폴딩도어로 교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더하기도 했다. 이어 방문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을 둘러보며 은 시장은 "이곳 복지회관에서 탄천으로 연결된 산책로가 개선공사 전에는 여객의 높낮이가 달라 어르신들께서 보행에 불편하셨다고 들었다."면서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다른 곳도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책로 연결 데크에 설치된 투명 안전난간에 새들이 날아와 부딪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야생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성윤기자

시흥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 성공! 지역주민 안전 강화 실현 본격화

시흥시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 간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제안전도시 최종평가에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에 성공했다.

이번 평가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 사무총장인 굴브란트 쉐베르크(스웨덴)와 조준필 야주대 교수를 비롯해 총 6명(국외 3명, 국내 3명)이 참여했다.

평가 이틀 간 8개 분야(▲총괄보고 ▲순상감시체계 ▲의도적 손상(자살예방, 폭력예방) ▲비의도적 손상(교통안전, 낙상예방, 산업안전) ▲고위험 분야(취약노동 계층))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평가단의 총평을 끝으로 평가가 마무리됐다.

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착수해 지역안전수준 진단과 관련 조례제정 등을 시작으로 300여 개의 안전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서, 소방서, 자살예방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 내 관계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협력하고, 국제안전도시 7가지 공인기준에 따라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순상사망률과 안전인식, 행태변화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굴브란트 쉐베르크 평가단장은 총평에서 "상징적 수준의 안전도시를 구축했음을 확인했고, 이런 사례들이 다른 도시에도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시흥시의 안전 역량을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 선언에 기초해,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까지 시흥시를 포함해 전 세계 432개 도시가 공인받았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 1천억 '금자탑'...공공배달앱 최초

이석훈 대표이사 "주35시간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높아진 점도 목표 달성 큰힘"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상생 플랫폼'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달성하며 올해 목표액 조기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20일 기준 전국 공공배달앱 최초로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1년 20일 만에 이룬 성과로 올해 목표액인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어섰다. 배달특급은 서비스 개시 3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뒤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7일 300억 원 ▲7월 27일 400억 원 ▲8월 26일 500억 원 ▲9월 19일 600억 원 ▲10월 11일 700억 원

▲11월 7일 800억 원 ▲11월 30일 900억 원 발판을 밟으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화성·오산·파주 3개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배달특급은 올해 도내 30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약 4만 5,000개 가맹점이 배달특급에 입점해 60만 명의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누적 주문은

392만 건을 넘어섰다. 착한 소비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단일 지역 기준으로 화성이 누적 거래액 175억 원, 수원 115억 원을 뛰어넘었고, 용인은 일간 기준 최고 매출인 1억 6,000만 원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수수료 단 1% 강점과 함께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시장 안착에 주력했다. 특히 지역밀착·지역특화 사업을 통한 지자체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를 뒀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를 맺으며 소비자 선택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 지속적인 앱 개선과 함께 기존 별첨 형태 리뷰 기능을 사진 등 문구 선택형 리뷰로 탈바꿈하는 등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악성 리뷰를 사전 방지하면서도 리뷰를 활용한 자체 프로모션 전개 등이 가능해 호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는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등 플랫폼을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배달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머스 사업으로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과 함께해 주신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올해 누적 거래액 1,000억 원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올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직원들의 능률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 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주식회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욱 발전하는 대표 공공배달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영기자

C
capital area
수도권II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이천시, '22년도에도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민 행복 구현

고양시 고양동 지역,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최종 선정

역사와 미래가 통하는 '높빛 고양(高陽)' 조성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플리마켓 운영 ▲거점 공간(고양동 마을 공작소 등) 조성 등이다. 이로써 시는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성사혁신지구 총 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고양동 지역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고양시는 '역사와 미래가 통하는 높빛 고양(高陽)'사업 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주관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2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에게 단기간(1년) 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참여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부가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내년부터 1년여에 걸쳐 '고양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덕양구 고양동 233-1번지 일원(약 77,500㎡)에 마을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참여를 통한 자생적 도시재생이라는 비전 아래 1억 5,700만원이 투입된다. 고양동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협동조합설립 ▲마을 브랜드 만들기 ▲집수리지원 자문단 설립 ▲고양동 스케치북 제작

광명동굴에서 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광명해요!

광명도시공사는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4시 30분부터 광명동굴 경관광장 주차장에서 '2021 광명동굴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개최함에 따라 콘서트 관람을 위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1 광명동굴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인 콘서트'는 각자의 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비대면으로 관람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공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서트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되며 육중완 밴드, 노지훈, 이삼사오 밴드, 튜어라운드 총 4팀이 출연하여 크리스마스를 수놓을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오는 21일 화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광명동굴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광명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드라이브 인 콘서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명동굴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사는 출연진 및 관객 코로나19 음성 확인 및 차량과 무대 방역을 철저히 하여, 관람객 안전에 최우선을 기할 방침이다.



이천시가 2022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의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년 4천여만 원 수준이던 사업예산을 '22년은 41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연 평균 2개 지구 내외로 추진하던 사업물량을 '21년도에 10개 사업지구(2,063필지), '22년도에는 12개 사업지구(2,066필지)로 경기도 내 최대 사업량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직원들 각자의 직무능력과 소통을 통한 좋은 팀워크를 이뤄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지축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 등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으므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저누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합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고양시
사관과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정의로움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기업SOS
이동시장실... (주)SPG수소 방문

윤화섭 안산시장은 국내 유일 수소전문기업 (주)SPG수소를 찾아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지난 7기 취임과 함께 매달 진행하고 있는 '기업SOS 이동시장실'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1년여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한 이후 올해 여섯 번째 방문이다.

이성재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방역안내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며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수원시, '수원화성 야간관광',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예술경관조명 설치, 야간 상설관광 프로그램, 수원문화재야행,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 등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

수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 한국관광의 별'에서 '수원화성 야간관광'으로 본상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2010년 시작된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지, 방송 프로그램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것이다. 매년 본상(관광지) 4개소, 특별상 4개 분야를 선정해 시상한다.

본상은 ▲관광지 자체의 매력이 뛰어나거나 ▲신규 콘텐츠와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거나 ▲관광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 곳 등을 선정한다.

특별상은 3년 이내 신규 관광지 중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 프로그램 ▲한국관광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지속 가능성이 높은 관광사업체·관광프로그램 등을 선정한다.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수원시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2017년부터 '야간관광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야간관광 거점개발'·'야간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인프라(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장안문-화홍문 구간과 용연에 예술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야간특화 콘텐츠사업으로 화성행궁 야간개장과 연계한 야간관광 상설프로그램(야간경관조명·인공 달 등 전시물 설치), 문화관광 재현 배우 프로그램(행사 안내, 순라군)을 운영했다.

또 수원화성 일원 곳곳의 야경을 감상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수원문화재 야행'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를 열어 행리단길에 빛의 거리와 포토존을 조성했다. 관광산업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성안마을 미디어아트전'과 화서문 성벽 미디어파사드·라



이트쇼 등은 포스트 코로나 관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화성은 대규모 야외 도심 관광지로 공간적으로 분산 관람을 할 수 있다"며 "2024년까지 서장대 성곽길·보행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야간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화성의 야간특화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그동안 두 차례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바 있다. 2012년 '수원화성', 2015년 '무예24기'가 선정됐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 우수마을 선정돼

화성시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20일 '2021년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평가'에서 음식 분야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어촌관광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40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총 4개 부문으로 실시됐다.

우수마을로 선정된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화성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항인 궁평항에 위치해 궁평 낙조와 수려한 해상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다.

특히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을 통

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선보이고, 망둥어 낚시, 조개잡이, 레저보트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불거리부터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휴양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은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해 어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궁평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어촌휴식시설 활용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중리동 '사랑 愛 집고치기'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지난 18일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중리동 장애인·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는 컨테이너를 부분 개조하여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도배가 부분 되어 있지 않으며, 장판이 열에 그을려 검게 변해있는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여 대상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중리동 맞춤형복지팀에서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접수리를 의뢰하였으며, 국제와이즈멘 이천클럽은 도배·장판 교체 및 청소 등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인 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고려한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도움을 주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국제와이즈멘 이천클럽 서정호 회장은 "추운날씨에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희동 중리동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국제와이즈멘 이천클럽과,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성윤/기자

가수 송창식 거리 조성 활성화를 위한 2021 인천 중구 비전공감포럼 개최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중구 제1청 월드컵 회의실에서 '송창식 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지역 브랜드 창출을 주제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2021 중구 비전공감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을 고려해 현장에는 공감마을 주민협의체 및 현장지원센터, 송창식팬클럽 운영자,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40여 명이 참여했고, '유튜브(YouTube) 인천중구TV'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여 총 200여 명이 포럼에 참여했다.

포럼은 (주)엘플래닛건축사사무소 나관희 대표의 "인적자원과 미래 가치", 추계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서상희 교수의 '대중음악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이후 좌장 김상원 교수(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의 진행으로 나관희 대

표와 서상희 교수, 윤순학 대표(주)와이어반컬처, 김학선(대중음악평론가), 손동혁 실장(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정동준 의원(인천중구의회), 최정현 과장(인천 중구 도시항만재생과)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국내 및 해외 음악가 거리 조성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과 한계점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 수립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민·관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강화, 아티스트와 그의 음악 홍보를 통한 전세대 유인, 인근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강력한 배후지 형성, 관 주도의 지나친 관광산업화보다 주민의 행복한 삶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홍인성 구청장은 "다른 지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무엇보다 주민 거주공간과 조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참여 및 소통으로 송창식 거리를 조성해서 더욱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안성시 건축과,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안성시는 2022년 1월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건축과 내에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등에 대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이는 주말체험 영농 등 농업경영 장벽을 낮추고 주민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인 농업용 가설건축물은 농지 내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며,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건축과 건축지도팀 내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

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내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양성화 가능 여부, 신청 및 처리 절차, 이행강제금 사전 안내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면 작성 지원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엄기현 건축과장은 "처분이 목적이 아닌 치유와 해소를 목적으로 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5개소 적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무면허 영업행위 2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설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놓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미용 영업행위(화장·분장, 피부, 네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현호/기자

삼척시, 하반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일제 점검 실시

삼척시가 평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최적 상태 유지 및 관리로 유사시 주민보호를 위해 내년 1월 14일까지 '하반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전시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이다.

이번 대피시설 점검은 관내 주민대피시설 2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민대피 계획에 따른 적절한 장소 확보 ▲안 내 및 유도 표지판 훼손 여부 ▲비상용품함 비치 여부 등이다.

이동원/기자

영등포구,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 '총력 대응' 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등 4대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과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와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 방안 등 12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6시~21시 사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부실검사를 방지하고자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구-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기존 선착순 지원에서 저소득층,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후 보일러 우선 지원 방식으로 확대 보급하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소비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192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시설팀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분진정소차 확보 및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친환경 공사장'을 시범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관리를 유도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이번 점검으로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거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시 신규로 지정할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대피시설 현황화된 자료는 시 홈페이지 민방위 관련시설 조회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관련 시설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평시 점검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도, 공직내부 직장내 괴롭힘 근절 나서

경북도, 2021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21일 도청에서 '2021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개인의 고민을 넘어 조직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도청 내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시행했다.

지난 9부터 12월까지 경북행복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파악을 위해 공무원, 공무원, 청원경찰 등 도청 소속 직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괴롭힘 경험이 있는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도 진행했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 인권보호관

채용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준 경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로 도청 직원들이 존중받는 일터, 행복한 일터로 변화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윤봉금/기자

태성해운, 울릉여객사업 사실상 포기, "사업 철수 절차대로 진행될 것"

-우리누리호 후 내년 1월 초 매각 마무리, "대체선 계획 없다."

-G고속훼리에 47억 매각 진행 중, 일부에선 먹튀 논란



울릉도에 본사를 두고 울릉과 포항을 오가던 태성해운의 우리누리호가 G고속훼리에 매각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대표와 임원의 말에 의하면 "매각 대금은 47억으로 22년 1월 초순경 G고속훼리측으로 인도가 완료"되고 "대체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철화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사실상 태성해운은 현재 3개월간의 장기휴업에 들어갔고 직원 중 최소인원만 출근을 하고 있어 실제 사무업무는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태성해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부분 여객 사업 활력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누리호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사실로 확인되면서 매각 이후 미칠 영향에 오히려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당장 22년 봄부터 여객 운송에 차질이 예상된다. 울릉지역의 모 사회단체와 법적 다툼 중인 D사의 엘도라도호의 취항도 불투명한데다가 여객 공급이 과하다면 과한 것이고 고사하고 개탄스러울 만큼 조정 능력 상실했다"라고 하였다.

또 그는 "기업은 기업의 목표가 있고 정치는 정치의 목표가 있고 주민 개개인은 목표가 다르다"며 "이 상황은 웃게 되는 자는 해운사가 될 것이고 울게 되는 것은 울릉 사회

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주민 A 씨는 "태성해운도 지역 주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것이고 지역의 모 단체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빠져 주민의 대표라는 식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며 "통합할 것이 있다면 빨리 통합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보고만 있다가 그때야 패로 나뉘어 서로 샅대질할 거면 혼란만 가중할 뿐 울릉에 이득이 되는 게 무어냐?"하고 "기대와 상관없이 그럴 것(패로 나뉘어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구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해관계에 묻혀 울릉으로 오가는 운송사업 전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 B 씨는 "여객과 화물 운송이 그들 사업자의 논리와 정치권의 무지로 하여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며 "여객 공급이 과하다면 과한 것이고 공급과 공급 조절이 유기적인 것은 고사하고 개탄스러울 만큼 조정 능력 상실했다"라고 하였다.

이때에 구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해관계에 묻혀 울릉으로 오가는 운송사업 전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민 B 씨는 "여객과 화물 운송이 그들 사업자의 논리와 정치권의 무지로 하여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겠냐"며 "여객 공급이 과하다면 과한 것이고 공급과 공급 조절이 유기적인 것은 고사하고 개탄스러울 만큼 조정 능력 상실했다"라고 하였다.

또 그는 "기업은 기업의 목표가 있고 정치는 정치의 목표가 있고 주민 개개인은 목표가 다르다"며 "이 상황은 웃게 되는 자는 해운사가 될 것이고 울게 되는 것은 울릉 사회

(주민)라며 "울릉의 정치 행정이 만들어내는 공무가 우는 자를 달랠수 있다면 그것 말고는 (기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릉군 C 의원은 "태성해운이 폐업하게 되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지만 "현재 대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할 따름이다"라고 하며 "썬라이즈와 엘도라도호 후포 노선 그리고 뉴시디필호가 여객 수송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해도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찌 될지는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의회도 상황에 무관하거나 무심하지 않은 만큼 때에 맞춘 적절한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며 다소 원론적인 태도로 취하였다.

울릉군청 담당 부서에서는 "아직 행정적으로 매각 사실과 폐업 관련한 공문은 받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라며 "태성해운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면허정지 수순을 밟게 되고, 그 후 주민의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공모를 포함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문이 접수되면 행정적인 공백이 없도록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정현종/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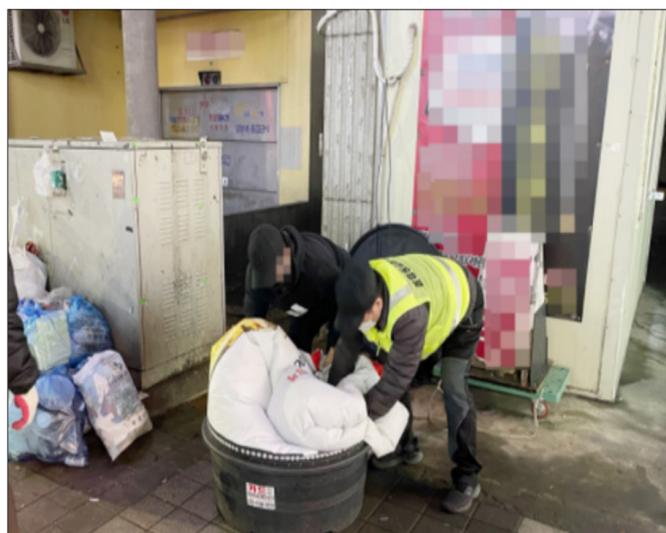
수원시 장안구, 불법광고물 합동 야간단속 실시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일,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동, 정자동 상점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야간단속반 8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은 낮 시간대를 피해 도로변에 설치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LED전광판, 입간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총 12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정을 감안하여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올바른 광고물 설치법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에 힘썼다.

구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은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강풍에 찢어진 현수막은 보행자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society

사회

문화매일

7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서울시, 위조 골프의류 등 약 26억 원 상당 적발...91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제품은 ▲신발 3,254점(정품가 4억8천만 원) ▲의류 2,513점(7억7천만 원) ▲벨트 1,267점(4억2천만 원) ▲액세서리 1,064점(6억8천만 원) ▲모자 254점(7천만 원) ▲머플러 227점(7천1백만 원) ▲지갑 118점(8천7백만 원) ▲넥타이 39점(1천1백만 원) ▲가방 13점(2천2백만 원)이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 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5개월간(‘21.7.~11)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하였다.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의류 2,225점(정품가 7억3천6백만 원), 골프신발 3,230점(4억6천1백만 원), 골프벨트 261점(1억4천만 원), 골프모자 204점(6천7백만 원)이다.

특히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온라인 판매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대상 전방위적인 현장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 40명 중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는 26명, 판매규모 5,173점(정품가 11억7천5백만 원)이며, 동대문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4명으로 판매규모는 747점(정품가 2억2천9백만 원)이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법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상표권 침해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국내 온라인 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철길숲과 형산강의 만남,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 착공

포항시는 21일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포항철길숲 상생숲길 인도교는 포항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그린웨이 프로젝트 철길숲'사업의 일환으로, 연일읍 유강리 제2수원지 정수장(유강코아4차 소재)에서 형산강까지 연결되는 교량이며, 이번 연결사업으로 철길숲과 형산강을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걷는 길 인프라'가 구축된다. 총 길이가 9.3km에 달하는 인도교는 현재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책로로 자리매김한 철길숲을 형산강 상생인도교에 연결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시민들이 철길숲에서 형산강까지 자유롭게 났다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인도교는 랩프구간을 포함해 총 길이 140m, 폭 3m의 보행도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철길숲과 형산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인도교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을 진입하는 7번 국도에 위치해 포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처음으로 아름다운 구조물을 선사할 수 있도록 포항의 로고를 포함한 경관조명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어, 단순하게 길을 연결하는 교량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상생숲길 인도교 연결사업"을 통해 철길숲과 형산강 권역이 연계됨에 따라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걸을 수 있는 도시숲 공간이 더욱 확대됨과 동시에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걷는 문화의 확산과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노이기자

구미시, '2022년 문체부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 선정

국가산단 연계한 산업관광 자원화 및 관광도시 브랜드 창출

구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산업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서류평가 과정을 통해 본심사에 올라온 5개 후보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구미시가 최종선정됨으로써 2022년 국비 1.5억원,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5.5억원의 규모로 산업관광 활성화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구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목구미(耳目口味)', 대한민국 산업화 1969'라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콘텐츠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구미공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투어코스로서 구성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



다. '산업관광'은 기업의 생산현장이나 홍보시설 등 재래·전통산업, 과거 산업유산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기업이나 지역은 브랜드나 지역산업 홍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느새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영역이다. 구미시는 지역 제조기업, 대학 등 총 7개 산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라면캠핑축제와도 연계하여 일상에서의 체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산업관광 육성사업 최종선정에 함께 노력한 7개 산학 컨소시엄 대표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교육·체력 중심의 제조업 연계 산업관광 서비스 발굴과 생산제품 전시 판매를 위한 전용 판매장 조성 등 다양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도시 브랜드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봉금기자

대구 서구, 2022년 'The 3column' 전시 공모

서구문화회관은 2022년 'The 3column' 전시 참가자를 2022년 1월 7일까지 지역 작가들에게 공모신청 받는다.

'The 3column'은 올해 처음 시행된 공모사업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서구문화회관 전시실 3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전경과 벽면에 3명의 작가들이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명을 정해 자유롭게 전시하는 시리즈 기획전이다.

서구문화회관은 올해 첫선을 보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던 'The 3column'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하여 서구의 대표 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서류와 면접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팀에게는 전시보상금 뿐만 아니라, 홍보 리플릿 제작, 도슨트 운영과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온라인 전시회 제공 등 창작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평면화·설치·조각·영상 등 시각예술 전 부분에 걸쳐 관련분야를 전공한 작가들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응모방법은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서구문화회관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미설 서구문화회관 관장은 "개성

과 창의성이 풍부한 지역작가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

한 작가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장동호기자

안동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공회 모디' 2021년 마지막 모디데이 'Winter Party' 행사 개최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시민공회 모디'와 함께 시민 주도로 2021년 마지막 모디데이 'Winter Party'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공회 모디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민모디학교(기획자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수료생으로 구축된 제1기 예비문화기획자의 주도로 사업을 기획, 실행하여 진행된다.

2021년의 모디의 활동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2022년의 시민공회의 활약을 다짐하는 연말 '아듀 2021 파티'행사의 특색있는 모디데이 진행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12월 21일에 진행되며 ▲1부는 14시~18시까지 개회식 및 라인댄스,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 다같이 모디데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디스토드에서는 아나바다 기부 장터가 14시~18시까지 진행된다. ▲2부는 19시~21시 까지 모디광장에서 무예버스킹 및 무디684의벽에 미디어파사드 아트 맵핑, 문화홀에서는 공연 및 소소한 예술품 경매가 이루어 진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부, 2부 나눠 선착순 40명 한정 사전 신청으로 진행된다. 사전신청은 안동문화도시플랫폼 홈페이지 시

민참여란에서 할 수 있다.

시민공회 모디의 관계자는 "이번 12월 연말 모디데이 윈터파티를 통해 모디데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비문화기획자들이 지역 문화인력에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시민공회 및 문화플랫폼 모디684의 안동시민 참여가 확산되어 문화도시 안동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덕자기자



경북도, 산돌배로 임업인 소득원 확보 나선다

경상북도는 21일 오후 산림자원개발원(원장 정철화)에서 '산돌배 고부가가치개발 R&D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산림자원개발원은 2018년부터 계명대학교 식품공학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산돌배 건강기능성 효능평가 및 고부가가치 개발로 현장실용화가 가능한 상업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 산돌배 알코올성 위염·비만·지방간 개선 특허출원 3건으로 관련기술을 선점하고,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 5.014)에 논문게재로 산돌배 위염 개선효과를 과학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숙취해소음료, 기능성 막걸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제작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상업화 롤모델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철화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산돌배가 지역대표 임산물로 자리매김 하도록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발과 공격적 마케팅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임

업인의 지속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돌배는 과육이 단단하고 신맛이 강해 주로 당절임, 건조, 혼합음료 등 단순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강원 인제, 전남 광양에서 주로 생산되나 2016년부터 구미 무을면에 돌배나무 지역특화숲(460ha)이 조성되면서 본격 생산되는 2024년 이후는 주요 생산지 변동이 예상된다.

건강과 '술 마신 티 안내기'를 쟁기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숙취해소 시장규모는 2500억원에 달하며, 중국 등 해외시장을 앞 다퉈 개척하고 있어 더 확대될 전망이다.

햇겨울매가 주도하는 기능성 음료시장에서 틈새 공략으로 산돌배는 새롭고 다채로운 소재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봉금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위해 시정역량 총결집”

자금 문제 해결·비대면 판로 확보·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산업화 전략 마련 등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모색... 지원 효과 및 방향에 대한 현장 목소리 경청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부산시는 오늘(21일) 오전,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가인 소담스케어(동구 범일동 KT타워 18층)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외식업, 휴게음식업,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미용업, 제과업, 목욕장업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듯이 인내하고 버텨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산은 경기에 민감한 영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그 경제적 타격은 다른 도시보다 크다”라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

력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를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결재했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힘써왔다. 또,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안건으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정한 데 이어 올해 마지막 제22차 회의의 안건을 ‘소상공인 산업화 전략’으로 정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모색해왔다.

특히, 부산시는 현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무(無)한도·무(無)신용·무(無)이자 ‘3무(無) 특별자금’을 5월과 12월, 두 차례 출시하였으며 임차료 특별자금도 기존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운영한 데 이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재산세를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사업’에 4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에도 노력해왔다.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1조 6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도 도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판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내년 1월, 공공 모바일마켓 ‘동백톡’이 부산 전역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 가맹비·중개수수료·광고비가 없는 3무(無)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변화도 시도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인프라가 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2022년 상반기 중에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선다. 소상공인 청년고용 일자리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지난주 제2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산업화 전략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시는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소상공인 산업화 기반 마련, 개인·업종·공목상권의 소상공인 브랜드화 지원, 온·오프라인 콘텐츠 확보를 통한 온라인비즈니스 대응력 강



박형준 부산시장,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정책수립 위해 시정역량 총결집”

화 등을 전략으로 삼고, 지역의 앵커스토어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계별 성장시키고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에 설립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정책에서 소외받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기울

이겠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감사와 위로로 전한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연합회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단을 꾸려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함께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남궁영기자



area

영남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9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지역 주민 소통강화에 힘써

경상남도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장단과 토지보상위원회와 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1·2차 주민설명회, 토지보상협의회, 보상설명회 등 올해 7차례에 걸쳐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보상금 산정은 현재 보상업무를 수탁 중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1개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한 2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부터 토지소유자와 개별 협의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보상관련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지되는 개별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내년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6년에 농업기술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경남 미래농업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 진주시 초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농업기술원 부지는 농업기술원 이전이 완료되는 2026년 이후 초전신도심 2단계 개발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전되는 농업기술원은 부지면적 571,000㎡, 건축면적 59,000㎡로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는 1,836억 원(전액 도비)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윤광남/대기자



빅데이터’로 본 올해 의료기기 키워드 ‘김해의생명산업 진흥원, 지역클러스터’ 눈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를 활용한 의료기기 분야 키워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지역클러스터’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빅카인즈 자체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어 출력된 결과치로 신문, 방송, 기사 속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언급량(가중치)이 많았던 의료기기 분야 주요 키워드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84.32)와 보건복지부(13.34) 등과 같은 주무부서들과, 코로나19(57.87), K-방역(8.8)의 가중치가 두드러져 나타났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5.27),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14.94), 원주(14.88)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방위적으로 활발한 의료기기 기업 창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펼치고 있는 지역 클러스터가 포함되었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션 지원사업으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4년 연속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주요성과로 수도권 의생명산업 공동 연구 기틀 구축, 강소특구연구소 기업 22개사 전국최다 등록, 김해메디칼실용화센터 개관, 보건의료데이터클러스터 MOU, 임주기업 의료연구 AI 플랫폼 코스타드 상장, 김해의생명 창업기업 이산화염소가스 멸균기 의료기기 허가 완료 등 주목

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 적극적인 홍보와 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에 기여 할 수 있었다.

또한, 산학연병 공동 연구회·기술사업화 연계 연구회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우수 의료기기 발굴 및 사업화 성공률을 증가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지역클러스터-병원연계 창업인큐베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중심의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함으로써 김해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수도권 병원과 함께 창업기업의 병원 연계 기회를 보다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거제 저도! 내년 2월부터 대통령 별장 외곽 관람할 수 있다

거제 저도 내 대통령 별장이 내년 2월 1일부터 외곽관람과 사진촬영이 허용된다. 더불어, 절차 개선으로 당일 입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유일한 휴양지인 탓에 관람과 촬영이 엄격히 제한된다. 섬 전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사전 입도 승인 등 관람객으로의 현실적 한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았다.

관광객들이 꼽는 저도 관광의 가장 큰 매력도 대통령 별장에 대한 관심이며, 잘 보존된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거제시는 저도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 별장 외곽개방과 입도 불편 개선에 집중하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대통령경호유관시설인 청와대의 사례와 민통선 출입절차에 주목했다. 거제시는 외곽개방과 입도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청와대 방문 건의를 시작으로 7월의 지도 상생협의체(실무회의)를 통한 관련 기관 설득, 8월 외곽개방 세부구간과 내용에 대한 청와대, 국방부·해군 건의, 10월 입도절차 개선 협의, 11월의 청와대와 경호처의 현실조사 등 쉽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그 동안 접근이 금지되었던 대통령 별장 주변도 돌

러릴 수 있고, 사진촬영도 가능해진다. 거제시와 유람선사의 세부 협의를 남겨둔 당일입도도 같은 시기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관광객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안겼던 저도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한껏 뽐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변광용 거제시장은 “그간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노력이 있어왔는데 이런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저도 개방선언처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즐기는 남해안 해안관광의 중심지로 저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17일 47년 만에 대통령의 쉼터에서 국민 모두의 쉼터로 돌아온 저도는 그동안 8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이 기간 동안 거제시는 관광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저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역대 대통령 기념공간(조형물) 조성사업,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와 탐방편의 증진을 위한 관람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해군정비기간인 1월과 7월, 매주 수요일은 저도 개방협약에 따라 입도가 제한된다.

강영훈/기자

산청군 내년도 인구정책 추진 박차



산청군이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 내년도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일 군은 조형호 부군수 주재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하동군,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동참 열기 후끈

하동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추진하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각계각층의 후원금 기탁 행렬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3일 주사랑 어린이집 일동이 8만 7000원, 최인용 하동고등학교 교장이 10만원, 한국부인회 하동지회가 20만원을 기탁했다.

14일에는 하동군자원봉사협의회가 2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가 30만원을 보내왔다. 15일에는 하동군인업후계자지회가 1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20만원, 하동초등학교가 42만 4000원, 하동군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가 50만원, 고전면이장협의회가 1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날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가 발전소 주변 고전·금남·금성 3개면 저소득층 중·고등·대학생 지원을 위해 장학금 1440만원을 기탁해 30명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지원 예정이다.

또한, 지난 15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하동군이 후원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 행사’에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돕

고자 하는 마음을 한데 모아 2943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협 하동군지부가 20만원, 하동군수협이 50만원, 하동축산농협이 50만원, 하동군산림조합이 30만원을 내왔다. 노인회 하동군지회가 10만원, 하동문화원20만원, 이양호 하동군장학재단 이사장이 100만원, 이양성 하동군기자협회장이 5만원,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만원, 행정동우회 10만원, 칠불사 도음 주지스님이 1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 사회단체의 동참도 이어졌다. 새마을하동군지회가 15만원, 새마을부녀회가 15만원, 생활개선회가 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30만원, 하동군축산연합회가 20만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수협부녀회가 20만원을 후원했다. 재향군인회가 30만원,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가 30만원, 지체장애인연합 하동군지회가 10만원, 한국예총하동지회가 10만원, 하동군어린이집연합회가 30만원을 내왔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뜻을 함께 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이 70만원,

섬진강사랑의집이 38만원, 하동요양원이 20만원, 하동군성가족상담소가 10만원, 하동지역자활센터가 30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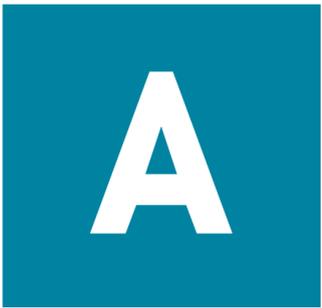
건축사무소 성림 임동민 소장이 20만원, 건축사무소 오름 박병용 건축사가 20만원, 추재성 고전면발전협의회장이 5만원, 하동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일동이 2만 4000원, 하동군산불전문진화대 3조대원 일동이 30만원, 하동읍 1조 진화대원 일동이 30만원, 익명의 기부자가 12건 37만 2000원을 기부했다.

하동군청 소속 공무원 공무원도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1006만 5000원을 내왔으며, 13개 읍·면에서는 ‘사랑의 열매 판매’ 등으로 지역민의 마음을 모아 모금한 858만 9000원을 기탁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액을 추가로 기탁 예정이다. 윤상기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화순군, 행안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 전남도 1위

여수시, 조발해오름언덕에 섬섬여수 힐링쉼터 '더섬' 조성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화순군 능주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우수 마을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80곳에 조성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9개 분야 지표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은 전국 280개 정보화마을 중 5위, 전남 39개 정보화마을 중 1위를 차지해 행안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비대면 판매 확대·SNS를 통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에서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특산물 판매를 연계해 고령화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 외에도 자립운영 노력도, 역량강화 노력도, 상품 개발, 홍보,

정보격차 해소 등 지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마을 주민과 지역이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더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이 지역의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목포시, 2022년 목포 으뜸맛집 143개소 지정

목포시가 '2022년 목포 으뜸맛집' 143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특색있는 별미요리, 위생관리 상태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으뜸맛집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 선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공개모집에 접수한 총 40개소 중 행정처분이나 신청자격 결격사유 조항 등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맛, 향도성, 서비스, 위생, 분위기, 영업절차 등 6개 항목에 대한 2차 현장평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8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으뜸맛집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으뜸맛집에 대한 사후 점검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식품위생 업무 전문 감시원과 함께 공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전수 조사와 재점검 등을 통해 2개소를 으뜸맛집에서 제외했다. 시는 매년 으뜸맛집 사후 점검을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으뜸맛집이 목포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대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으뜸맛집은 목포의 맛을 대표하는 업소이다. 맛이 목포 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전남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나주 (주)사조원

2018년부터 4년째 선정... 오리 도축장 위생·안전관리 최고

나주 농업회사법인 ㈜사조원 나주공장이 한국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한 '2021년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온라인 시상식에서 오리를 도축하는 (주)사조원 나주공장이 닭·오리 부문 우수 도축장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조원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 쾌거를 달성, 도축장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이 최고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사조원은 1965년 나주 금천면에 회사를 설립한 후 닭·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삼계탕, 오리 훈제 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매년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정한다. 상위권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가 현장 점검해 베스트 도축장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도내 21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132개 업체를 평가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소비자도 전남산 가금육을 믿고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완도군, 2021년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성료

완도군이 올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3월부터 12월 8일까지 73회 운영했으며, 3,752명이 참여했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236회 운영, 17,531명이 해양기후치유를 했다. 특히 올해는 계절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대상자별 프로그램은 치매 경증 어르신과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프로그램, 도서 읍면 주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해양치유 체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챌린지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종류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다양화했다. 기존의 노르딕 워킹과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의 '싱잉 볼(singing bowl)'을 활용한 소리 명상, 파도 소리 명상, 마음 표현하기 명상, 맨발로 모래 걷기 명상 등을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우울했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양치



유 체험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다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치유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78.9%로 가장 높았고, 근육통 완화 27.8%, 관절통 완화 19.3%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서는 적극 참여가 85.7%, 생각해 보고 참여가 13.1%였다. 참가자 A 씨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너무 행복하다", 참가자 B 씨는 "깨끗한 신지 명사심리해수욕장에서 해풍을 맞고 햇살을 받으며 운동을 하니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해양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숙박을 하며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관광을 통해 힐링 할 수 있도록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양영율/기자

남원시
| 남원에촌 |

쉬고, 여유 남원에서 만나다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

전라북도 송하진도지사,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에서 입지 더욱 굳혔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송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쪽 모두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지방분권

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송 지사의 정치적·정책적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협력 강화 및 지원확대, 관리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010년 출범시킨 당내 상설기구이다.

(역대 위원장 관련) 김진표, 원혜영, 신기남, 박영선, 김두관, 홍영표

의원 등이 맡았다.

위원회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시·도당 자치분권위원장, 상임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하며, 자치분권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심의 의결하고 정책자문 등을 처리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분권 시대를 열 적임자"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송영길 당 대표는 신임 공동위원장 선임에 최고위원회에서 통과 시킬 정도로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지사 선임은 40년 지방행정가로써 송 지사의 경험과 역량이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상 최초 연인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송 지사가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 적격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이개호 국회의원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이번 송지사의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정치인-행정가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정착시키고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국정 목표를 정치와 지방행정 양측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직생활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지방정부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공직자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지방분권지원단을 역임하며 지방재정과 지방분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힘썼다. 박사 논문을 보완해 발간한 「정책성공과 실패의 대우법(공저자 김영평)」으로

자치단체장 최초 한국정책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깊다.

2020년 역대 전북도지사로는 처음으로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 회의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됐고, 2021년 사상 최초로 연인회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도 송 지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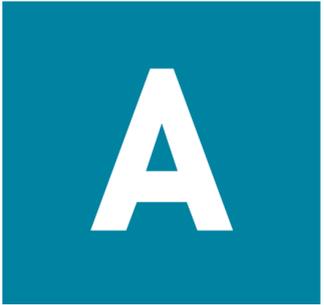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9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가칭'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 지사는 지방분권의 첫 단추를 중앙과 지방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의 지방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누리는 데에도 노력 중이다. 특히 재정격차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은 송 지사의 큰 관심사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으로 지방의 바람과 염원을 확실히 전달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위기 대응에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area
호남 II

문화매일 11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진안군,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우수사례 선정 쾌거

진안군이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1년 문화유산교육 통합워크숍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진안 문화유산탐험대(진안고원 숲은그림 찾기)'가 문화재청 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2021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선정돼 시범사업으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43개 프로그램 중에 우수사례로 뽑힌 8개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진안군이 추진한 '전통놀이와 함께 하는 진안 문화유산탐험대(진안고원 숲은그림 찾기)'는 머지큐브(증강현실), 진안고원 승람도놀이 등의 교구재를 개발하고, 진안역사박물관, 관내 무형문화재(진안고원형용기장)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교육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프로그램 보조강사로 활용해 지역 친화적인 사업으로 운용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2023년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에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으며, 향후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공모해 지역유산을 알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작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생생문화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공모에도 연이어 선정되어 2022년도 생생문화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출범 CI 공개

(재)부안군문화재단에서 재단 CI 개발 공모전 대상 수상작(수상자 이석곤)을 수정·보완한 최종 CI를 12월 21일 공개했다.

재단은 지난 10월 출범을 알리는 동시에 비전을 상징하고, 역사문화와 관광도시 부안의 브랜드를 담아낼 수 있는 CI 개발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 30여 점의 출품작 중에서 심사위원이 선정한 4점의 우수작을 대상으로 부안군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할 CI를 결정한 바 있다.

재단에서 공개한 이번 최종 CI는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 서해안 노을과 부안 들녘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색상을 담았다. 서로 다른 물방울이 섞여 어우러진 모습은 재단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군민, 모여드는 세계인, 문화예술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존재적 가치를 높임을 형상화한 것이다.

아울러 한글로 구성된 로고타입은 글자 자체가 하나로 이어진 독특한 모양새다. 공모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로고타입 그 자체로 하나의 심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서로 다른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예술로 하나된 부안군을 만들어 심벌마크에 담긴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현태/기자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 개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VR·AR제작거점센터에서 2021 전주콘텐츠페어 'X-콘텐츠마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지원한 기업들과 함께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 분야 콘텐츠를 체험·소개하고 최신 콘텐츠 트렌드와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메가트렌드, 메타버스'와 'K-뉴딜 인사이트'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 △구인·구직자의 만남 '취업톡톡' △1인 셀러, 실시간 라이브 방송 △3D펜 랜선클래스 등을 통한 3D프린터 온라인 체험 등이 있다.

컨퍼런스의 경우 1일차에는 전화성 씨엔테크 대표와 박진영 엔드라이프 대표, 최은석 디스트릭트 부사장, 최재홍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메가트렌드, 메타버스'를 주제로 미래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연다. 2일차에는 김필수 네이버 리더와 심인별 KBS 기술감독, 신정현 단국대학교 교수, 신상희 가이아3D 대표가 'K-뉴딜 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구인·구직자의 만남 '취업톡톡'은 구인·구직자간 1:1 심층상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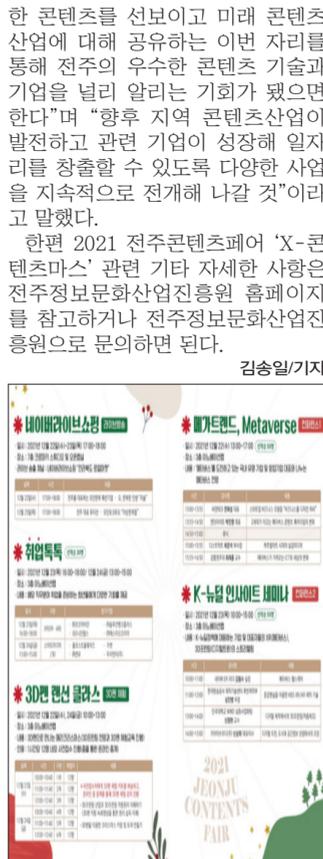
온라인 토크쇼를 통해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여기업의 경우 1일차에는 VR·AR 분야 △코코야비전 △(유)나인펠스 △솔루션뱅크플러스 △(주)에스지오 코리아 등이, 2일차에는 스마트미디어·3D 분야 △올모스트윌웨이즈 △(주)연우 △가넷 △두이엔디(주) 등이 구직에 나서며,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인셀러,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 한복제작기업인 '리슬'이 네이버 라이브쇼핑을 활용해 '오, 한복한 인생'을 테마로 한복판매와 성공스토리를 소개한다. 지역 대표 뮤지션 그룹인 '이상한계절' 밴드의 생생한 라이브 공연과 앨범 판매도 이어진다.

첫 날 행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라이브커머스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라이브 방송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북VR·AR제작지원센터 내에 조성된 XR스튜디오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 중인 중소벤처 개발사와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XR 관련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올 한해 지역에서 제작·지원



김승일/기자

익산 친환경 쌀, 판로 확대 '승승장구'

익산시 친환경 쌀이 서울 학교급식, 대기업 원료곡 납품까지 연달아 선정되며 판로를 확대해가고 있다.

시는 탐마루 친환경 쌀이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에 선정돼 내년 3월부터 2년간 두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1천여 톤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CJ(씨제이)에 연간 익산 친환경 유기농 쌀 150여 톤 공급,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 600여 톤 공급에 이은 익산 친환경 쌀 판로 확대를 이룬 쾌거다.

이를 통해 시는 환경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익산의 친환경 쌀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입찰에 참

여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2차 현장평가에서는 학교급식 현지실사팀을 맞아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적극 어필하며 최신식 친환경 쌀 전용 도정 라인과 체계적인 품질관리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7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3차 평가(품평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취소되면서 1차,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해 익산 친환경 쌀이 은평구, 성북구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CJ(씨제이), 수도권 학교급식 등에 원활한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해 내년에는 250ha 규모의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을 계기

로 수도권의 다른 자치구에도 익산 탐마루 친환경 쌀이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CJ 등 대기업과도 협력관계를 지속적 강화해 익산 친환경 쌀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남원 산간·구릉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급 완료

남원시에서는 그 동안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상수도 생활용수(식수) 공급량이 부족하고 수질관리가 열악한 산간·구릉지역의 광역상수도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환경부, 전라북도 등을 방문 건의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지역은 남원시 운봉읍 추촌마을의 15개마을 491가구이며,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생활용수의 수질악화와 수량부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살았던 주민들에게 보다더 깨끗하고 맑은 수도물을 풍부하게 공급 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구축하였고, 올해 대부분 급수공급이 완료되어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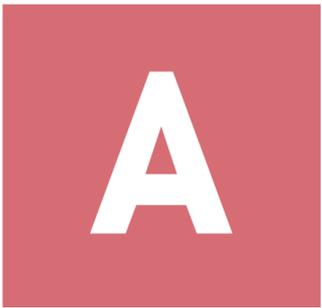
다. 또한, 남원시 관계자는 공사를 추진하는 동안 광역상수도 관로매설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체증, 소음, 비산먼지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급수계획(2022년)으로는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남은 독립된 마을(가구) 급·배수관로 5개마을 L=3km와 계량기설치 4개마을 140가구정도를 추가로 급수공급 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생활용수(급수)공급이 열악하고 수질, 수량 등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은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수도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이남출/기자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국제적 인지도 상승에 따른 "강릉" 브랜드를 지켜라

강릉

중국내 무단선점의심사표

강릉시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 "강릉" 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한국 특허청에 해당)에 이의신청을 하여,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표침해 사안은 강릉시가 1998년 11월에 특허청 등록된 상표 "강릉"을 중국 식품회사가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의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상표등록기관)에 "강릉" 상표를 무단 등록을 추진하여 오던 중국 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모니터링에 강릉 상표 침해(20년 8월)사실을 확인,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릉시의 승소를 결정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승소 판결 이유로 "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강릉시가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으며, 국제적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지며, 강릉시는 중국 업체가 강릉 상표를 침해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2018동계올림픽개최에 따른 국제도시로의 위상과 국제 언론매체 기사에 따른 인지도 상승을 주요인으로 꼽으며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범용으로 前대회 비상 주 개최도시의 강릉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KTX개통에 따른 국내 여행 핫플레이스로서의 명성이 높은 부분도 있다고 본다. 커피도시, 인피니티 호텔 인프라, SNS의 높은 노출빈도, 창의적 로컬콘텐츠의 매력과 지역배경 영화 및 드라마 등의 다각적인 요인으로 강릉을 방문하는 젊은 여행객들과 국내 거주 중국 여행객들을 통해 중국 내에도 강릉시가 젊은 도시로서 이미지가 전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적 행사 및 대회개최 예정에 따른 강릉 인지도 상승으로 분석하고 있다. 3회를 맞는 강릉국제영화제, 22년 7월 개최예정인 강릉세계합창대회, 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으로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에 의한 결과라고도 보고 있다.

강릉시는 추가적인 "강릉"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중국 내 국가 지식재산국에 "강릉"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 할 수 있다.

이동원기자

대전광역시, 제2시립도서관 건립 본격 착수... 기존 건축물 철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35㎡ 규모, 290억 원 투입... 2024년 3월 개관 목표

대전광역시가 민선 7기 대표적인 약속 사업인 '제2시립도서관' 건립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동구 가양동(현)가양도서관 부지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교육감, 황운하 국회의원, 황인호 동구청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시립도서관' 건립 착수를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2시립도서관은 동구 가양동 22-4번지(현 가양도서관)에 2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335㎡ 규모로 조성된다.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창의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며 지하 1층에는 강당, 소풍실 주민문화센터가 들어선다. 1층은 키즈카페형 돌봄공간, 어린이 체험전시실, 공작실 등으로, 2층은 독서문화공간,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메이커스페이스로, 3층은 독서문화공간(일반자료실), 북카페형 열람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대전시는 기존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인증절차를 거쳐 2022년 8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최소인원만이 참여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행사영상은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전블루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대전시는 도시발전으로 신·구 도시 간 인구와 문화 쏠림현상으로 신도심은 인구가 증가하고 문화·체육 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도심공동화로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적 소외감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왔다.

이에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에 제2시립도서관 건립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3월 제2시립도

정선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콘텐츠 개발 업무 협약식 개최

3YO(살드래요! 놀드래요! 팔드래요!) 프로젝트 추진

정선군과 ㈜비타민TV는 21일 정선군청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허주민(㈜비타민TV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콘텐츠 개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은 대표 관광브랜드인 정선아리랑을 테마로 5일장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정선아리랑 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을 신청해 지난 2020년 3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을 11월에 완료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마을여행 활성화를 위해 매입한 정선아리랑 소재 유류 건물에 대해 ㈜비타민TV에서 리노베이션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 운영, 다양한 관광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액커

시설로 명소화하고 정선군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3YO(살드래요! 놀드래요! 팔드래요!)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는 침체된 지역 관광지 주변의 유류 건물을 리노베이션하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을 연예인이 직접 참여하여 방송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정선만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로컬과 MZ세대 트렌드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결합한 새로운 관광개발 전략인 정선형 로컬엔터테인먼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나아가 정선아리랑 마을이 전국 최고로 유명한 여행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기술 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지난 20일 오후 진행된 '2021년 천안지역 중소기업 실용화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성과 공원을 위해 천안SB플라자에서 참여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천안시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실용화 기술 확보 및 기술 고도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은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8건, 시험분석 10건, 공정개선 5건, 제품개선 3건 등 모두 26건을 지원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A기업은 기존 일부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공정을 자동화 설비로 개선하며 시간당 생산량 100% 증가, 공정 불량률 75% 감소, 95% 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얻었다.

의료용품 개발사 B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에 기반한 호흡호흡용 의료기기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을 개발하는 C기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나,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의 시험분석 지원을 통

해 GS인증 획득에 내년부터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병욱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업의 대표들로부터 천안에 있는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과 천안시와 진흥원에 바라는 점에 관해 청취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병욱 원장은 "이번 간담회와 같이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안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철원 김화읍 "어흥이 연말연시 희망의 불을 밝히다!"

철원군은 최근 김화읍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으로 운영하는 화강 다슬기 소망등 공방 골재팀, 한지팀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2M 높이의 조형물 어흥이(호랑이)와 쉬리·다슬기 등으로 김화읍 희망의 불빛거리를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철원군은 2022년(壬寅年)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는 김화읍에 얽힌 전설과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은 평강 일대 가장 유명했던 김화 성재산 서낭당과 연관돼 있다. 옛 관노의 꿈에 여인이 나타나 사당을 지어달라고 부탁해 사당을 지었는데, 김화현감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사당에 치성을 드리는 것을 금치하니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현감 아들을 잡아갔고, 후임 현감부터 다시 제사를 올리게 했다는 설화이다.

이를 계기로 김화읍은 호랑이 조형물을 김화읍의 마스코트로 자리매

김해 연말연시 김화읍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는 등 점체된 지역 상징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황중현 김화읍장은 "수작업으로

조형물을 만든 공방 참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김화읍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충청남도, 반부패 청렴 시책 우수기관 4개소 선정

도시군출연기관등 평가... 청양군·공주시·부여군·서산의료원 '우수'

충청남도는 21일 '2021년 반부패 청렴 시책 평가'를 실시해 청양군 등 4개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살피고 우수한 청렴 정책을 공유·확산코자 추진했다.

평가 대상은 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는 천안·아산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과 참여 의향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7개소다.

도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 여부, 청렴 정책 참여 확대 등 14개 지표별 평가를 진행했으며, 우수기관으로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서산의료원을 최종 선정했다.

청양군은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청렴 정책 참여 확대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3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번 평가 전체적으로는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행,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의 지표가 전년 대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수기관 4개소에 표창을 수여했으며, 반부패 청렴 정책 유공자로 서산의료원 기관장 추천을 받은 직원 유용원 씨를 선정해 함께 포상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과 청렴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등급 2위를 기록했으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 6년 연속 최고등급(A등급)을 달성했다.

최정근기자



영동군, 내년 본예산 6,317억원 확정, 올해보다 20.9% 증

내년 영동군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20.9% 증가한 6,317억원으로 확정돼 사상 첫 본예산 6,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군은 지난달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제29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5,226억원보다 1,090억원(20.9%)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에 힘입어 연간가용 가능한 세입예산을 적극 편성해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 6천억시대를 개막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 첫 1천억을 돌파하는 과감한 투자가 돋보이며,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군'으로의 도약 전망을 밝게 했다.

내년 추경예산까지 반영되면 최종 예산은 7천억원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선제적 대응,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박세복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와 국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고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 4,746억원보다 928억원(19.6%)이 증가된 5,674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단일 분야로

는 가장 많은 1,122억원으로 19.8%를 차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한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 상승한 18.1%에 이른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06억원, 세외수입 124억원, 지방교부세 2,825억원, 조정교부금 215억원, 국·도비보조금 1,808억원, 내부거래 396억원이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 425억원(7.5%), 공공질서및안전 380억원(6.7%), 교육 53억원(0.9%), 문화및관광 578억원(10.2%), 환경 387억원(6.8%), 사회복지 1,122억원(19.8%), 보건 102억원(1.8%), 농림해양수산 1,025억원(18.1%), 산업·중소기업 80억원(1.4%), 교통및물류 192억원(3.4%), 국토및지역개발 490억원(8.6%) 등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19.6%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환경분야가 444억원(69.0%)으로 단일 분야에서 최대 비율을 차지했으며, 사회복지분야 3억원(0.4%), 교통및물류 52억원(8.1%), 국토및지역개발 122억원(18.9%)의 총 643억원으로 올해 480억원보다 163억원(33.9%) 증가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 △영동군 홍보관문(매곡, 용화) 설치 18억원 △월류봉 둘레길 순환코스 개설 15억원 △치매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주

차장 확충사업 15억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억원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10억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6억원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 37억원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38억원 △용두공원사면 경관정비 사업 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소계천 외 3개소) 71억원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36억원(주곡리 외 14개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기반조성 53억원 △웰니스 조경수길 및 사면정비 사업 20억원 △힐링관광지 인공폭포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 10억원 등이다.

또한 주요 보조사업으로 △초강천 병변장관광명소화사업 48억원 △노인일자리지원 61억원 △기분좋은 직접지원금 126억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8억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50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한석 외 3개 지구) 91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마산 외 3개 지구) 100억원 △레일노수 어울림센터 공사 68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영동읍 외 2개면) 124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29억원 △영동체육공원조성사업 69억원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 40억원 등이다.

김원호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자랑스러운 경기도박물관인상' 공로상 수상

성남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새경기도박물관협회)가 주관한 '자랑스러운 경기도박물관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수정구 신흥동에 '성남역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획 단계부터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박물관 건립에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기 위해 2018년과 2019년도에 12차례의 공론장을 마련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39명의 시민 워킹그룹이 8차례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박물관 프로그램과 공간을 기획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

례(2019.5.13)'를 근거로 시민 활동가와 함께 도시역사문화 자료도 수집 중이다.

현재 사진, 동영상, 음원, 건축 도면 등 9000여 점의 자료를 수집한 상태다.

관 주도이던 박물관 건립 방식을 깨고 '시민참여형'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로 별도로 열리지 않아 은 시장은 등기우편으로 공로패를 12월 20일 받았다.

(새경기도박물관협회는 2005년부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한 박물관·미술관 관장과 학예사, 유공자를 선정해 올해로 17번째 '자랑스러운 경기도박물관인상' 수상자를 시상했다.

이성윤기자



신스틸러 배우 조재윤, 용인시에 5천만원 상당 생필품 기탁

백군기 용인시장 "선한 영향력 널리 전파해 달라"

영화와 드라마에서 신스틸러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조재윤 씨가 용인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조재윤 씨는 21일 용인시청을 직접 방문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김치, 물, 디퓨저, 떡볶이 키트 등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생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용인시 취약계층 지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재윤 씨는 "도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중흥무진 활약하고 있는 조재윤 씨의 따뜻한 선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나보다 남을 더 위하고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재윤 씨는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남양주시의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 1000kg과 마스크 4만8000장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백군기용인시장이 21일 취약계층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한 배우 조재윤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초등학교부모폴리스 공유우산 전달

광명도시공사는 광명경찰서 초등학교 부모폴리스와 협력하여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과 공유경제 확산을 위해 광명시 초등학교에 공유우산 1,000개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우산은 ▲우천 시 초등학교생들의 등하교길 안전 ▲감작스러운 우천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불필요한 우산 소비 방지를 통한 자원 재활용 ▲사용과 반납, 재사용의 체계를 통한 공유경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공사와 초등학교부모폴리스는 지난 2019년부터 업무협약을 통해 공유우

산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공유우산과 우산꽂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부모폴리스는 배포된 우산의 회수 및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박중서 부부장은 "공유우산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공유경제라는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한 사업이다"라며 "학부모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2021년 구미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 선정



구미시는 탁월한 역량과 혁신적인 활동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한 기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 구미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를 선정하였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구미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 선정은 한 해 동안 지역산업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 · 시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업육성 시책으로, 최고기업인은 대 · 중견기업, 중소기업 부문 각 1명, 최고근로자는 남, 여 각 1명씩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최고기업인 · 최고근로자는 올해 11월초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자 접수를 거쳐 12월 13

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최고기업인의 경우 기업경영상태, 지역산업발전, 복리후생 등의 공적을 중심으로, 최고근로자는 동일분야 근속,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등 기여도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를 거쳐 2차 심사위원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되었다.

올해 최고기업인상 대 · 중견기업 부문은 ㈜백셀 박훈진 대표, 중소기업 부문은 ㈜코리아스타텍 김부일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남성 최고근로자는 ㈜보백씨엔에스 엄기덕 팀장, 여성 최고근로자는 GH신소재㈜ 박미라 매니저가 선정되었다.

최고기업인 대 · 중견기업 부문 ㈜백셀 박훈진 대표

(㈜백셀은 1978년 국내 건전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건전지 전문업체로 2차 전지, 보조배터리, ESS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인 에너지 관련 디바이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박훈진 대표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하여 이모빌리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매출 신장 및 수출 증대를 이루어냈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무교섭 임금단체 협약 체결, 마스크 기부 등 근로자 사기진작 및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최고기업인 중소기업 부문 ㈜코리아스타텍 김부일 대표

(㈜코리아스타텍은 2003년 창립한 세라믹코팅, 반도체 정밀세정 전

문 업체로 플라즈마 용사기술 국산화 성공으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김부일 대표는 외투단지 입주 1호 기업으로 입주업체 협의회를 구축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남성 근로자 부문 ㈜보백씨엔에스 엄기덕 팀장

각종 절연체 전문 제조업체인 ㈜보백씨엔에스의 생생팀에 재직하면서 본인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조건 최적화, 제품검사 자동화 도입 등 생산성을 향상하였고, 사원들에게 본인의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 근로자 부문 GH신소재㈜ 박미라 매니저

산업용 부직포 및 섬유소재 전문 여성 연구 인력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정부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클린룸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매출 향상 및 해당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최고기업인 및 최고근로자는 2022년부터 3년간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각종 문화 체육행사 예우 등의 특권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31일 시청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봉규기자

영양군, 한국농어촌 · 청송영양지사 인재육성장학금 기탁

영양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에서 12월 21일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를 찾아 장학금 1백만원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청송영양지사 최은석 지사장은 "영양군의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영양군 지역 발전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1990년 청송군에 설립되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안효선 자치행정과장은 "영양군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동참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발의한 '전국 최초' 공익소송 지원 조례 상복 터져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 등 수상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에 선정됐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에 의해 선정됐다.

공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좋은 조례로 선정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조례는 심급별 1,000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소송비용을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이 인정됐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 첫 회의에서 시행사 부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에 나선 송정 숲안에2차 아파트 16가구에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성과도 강조했다.

공병철 의원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만으로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

이 많다"며 "공익소송 비용 지원을 통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다수의 구민들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법제처가 주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산구가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덕윤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13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이상의 함평군수, 재임기간 급여 전액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부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가 1년 9개월 동안의 급여 1억6천만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육성장학금에 기탁했다. 지난해 군수 취임 후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오로지 군민에게 봉사만 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몸소 실천해 관심을 모은다.

함평군은 20일 "이상의 군수가 이날 1년 9개월 재임기간 급여 1억6천여만원 전액을 함평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무보수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급여 반납을 약속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재임기간 동안 월급과 수당 등 급여를 군세입세출회계로 계좌에 보관해 왔다.

한편, 함평군 인재육성장학금은 1993년 8월 법근민 애환운동으로 각계 각종의 모금운동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함평군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매년 함평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216명(상반기 102·하반기 114)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함평군은 지속적인 장학사업 추진 등 장기적 재일마련을 위해 2030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학우, 사회단체, 군민 등 다양한 참여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군수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수직을 수행한다고 다짐하고 급여 반납을 했다. 함평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쓰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장학금 조성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식기자

화성시의회 배정수의원,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화성시의회 배정수의원(동탄4~동탄8)이 지난 10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의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배정수의원은 제8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도시건설·주거·교통·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 제·개정과 8건의 시청 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배정수의원은 "항상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더 나은 자세로 군민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C

culture 문화

14 문화매일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넷플릭스 '지옥' 전시행사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지옥' 관련 전시행사를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 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행사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실내 스튜디오(영상특수효과타운) 두 곳에서 약 5개월간 주요 장면이 촬영된 점을 활용하기로 대전시와 넷플릭스와 합의하여 추진하게 됐다.

행사는 '지옥'의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형 '지옥사자 피규어' 3종(높이 2.7m)과 '새진리회 의장' 흉상(높이 1.8m) 등을 무상 임차하여 진행한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대전 특수영상 인프라 우수성과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특수영상콘텐츠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행사장인 엑스포시민광장은 정부대전청사, 한밭수목원, 한빛탑, 야외스케이트장, 아파트 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있어 평소시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및 설날 등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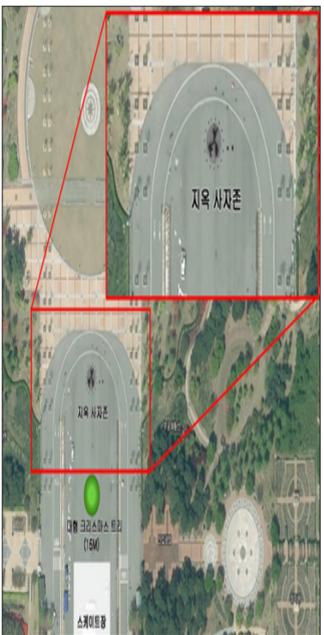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2월 15일 까지 약 한달 간 서울 코엑스에서 '지옥' 관련 콘텐츠 체험 전시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대전시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체험존 전시행사는 대전시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이 대전에서 촬영된 점을 넷플릭스에 꾸준히 강조하여 이루어진 만큼 시민들에게 특별한 체험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전에서 촬영되는 다양한 K-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진규 원장은 "전시기간 동안 행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관리에 최대한 신경 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의정부시,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 개최!

의정부시가 12월 18일 의정부정보서관에서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은 바둑문화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바둑메카 의정부, 한국기원 이전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홍보를 위해 열렸다.

올해 7월 바둑 콘텐츠 공모전 실시, 8~9월 바둑 인스타툰 제작, 10월 공모작품 야외전시회, 바둑 유튜브 제작, 12월 웹드라마 제작, 바둑 체험교실 진행, 바둑인사 토크쇼 개최 등 5개월간 다양한 분야를 통해 진행해온 바 있다.

이날 바둑 페스티벌은 공모작품 전시·소개와 시상, 바둑 체험교실, 바둑인사 토크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메인 행사인 토크쇼에는 세계 1위 프로기사 신진서 9단, 국가대표 코치 박정상 9단, 한해원 3단과 개그맨 김하도, 칼럼니스트 김태훈, 바둑 전문기자 정아람, 한게임 기획팀 장 송은영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일중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바둑,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바둑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바둑계 전반에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한국기원이 이전하고 바둑 전용경기장이 건립되는 의정부시에



서 펼쳐질 바둑 르네상스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둑의 미래를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오늘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이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어 프로는 물론 아마, 생활 바둑까지 활성화하고 바둑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 의정부 바둑 페스티벌은 기존 대국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

나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다채로운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둔 젊은 감성의 행사로 호평받고 있다.

한편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은 올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는 2022년 4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 바둑 신예 단체인 등 다양한 바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부산시, 수출기업인 축제 '부산 무역의 날' 행사 개최

부산시는 오늘(20일) 오후 4시에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우수 수출기업을 발굴·시상하여 수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58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수출 기업대표 및 유공자, 수출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수출대상, 우수상 및 정부포상 등을 포함해 총 15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올해 부산수출 대상에는 에스엔티모티브㈜ 김형철 대표가 선정됐고, 우수상은 ㈜코리노스 정기용 대표, ㈜바이오포토크리아 김성구 대표, ㈜동그라미프로젝트 송상운 대표가 받게 됐다. 수출유공자로는 에스엔티모티브㈜ 권형순 전무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또한,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수출에 힘쓴 47명의 무역인(산업훈장 3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5명, 산업부장관 표창 29명, 한국무역협회장 표창 6명)에게 정부포상과 무역협회장상이 전수되며 수출 2억 불을 달성한 ㈜동성화인텍 등 97개사에 대한 수출탑 전수식도

개최된다. 부산수출대상에 선정된 에스엔티모티브㈜ 김형철 대표는 "우리 회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불황의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부품과 방산 수출 확대에 의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각 사업의 수출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며, 더불어 최근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질적 성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산지역의 수출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든 것도 무역이라며,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격려하면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 발굴, 수출 다변화와 판로 개척 등에 있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기업 성장의 기회, 홍보의 장으로 세계박람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적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도 전했다.

남영기/기자

경기도, 1월 7일까지 2022년 경기관광축제 시군 공모...비대면 등 안전한 축제 추진

경기도가 내년 1월 7일까지 '2022 경기관광축제' 20개 선정을 위한 시·군 공모를 진행한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등 안전한 축제 개최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수 지역축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매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기관광축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축제 선정과 지원 방향으로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개최, 축제 현장 방역 시스템 구축 및 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예를 들면 ▲가족 등 소규모 그룹 단위로 현장 분산 방문을 유도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방문 인증 도장) ▲현장 미션을 포함하는 온라인 공모전 ▲드라이브스투(차량 통과) 방식의 농산물 현장 판매 ▲무인 키오스크(단말기) 매표 방식을 활용한 소

규모 현장 체험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한 현장 실내 공연 등을 축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는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시·군별로 3개의 축제를 추천받아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주도로 내년도 경기관광축제 20개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축제 발전역량 ▲축제 효과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하게 개최했는지, 지역 관광 진흥과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개최 실적도 비중 있게 고려한다.

이렇게 선정된 축제 중 상위등급 6개는 축제별 8,000만 원씩, 중위등급 8개는 축제별 6,000만 원씩, 하위등급 6개는 축제별 4,000만 원씩을 지원받는다. 해당 시·군에서는 도비 보조금을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

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시·군과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수행한다. 아울러 2023년도 경기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연중 진행하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장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축제 핵심 프로그램 개발과 문제점 개선을 유도한다.

축제 기간 도와 시·군은 현장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자 개인이 방역과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내년 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안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종로구 '인디 페스타 밴드 온' 21~22일 온라인 생중계

종로구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온라인에서 '인디 페스타 밴드 온'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공연의 즐거움, 무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기획했다. 종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7:00~22:00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먼저 12월 21일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표하는 응원곡 'Go West(원곡 펫삼보이즈)'를 선보인다. 인디밴드를 대표하는 밴드 '레이지본'이 출연을 확정된 상대. 최정상급의 라이브 실력을 자랑하는 레이저본은 이미 다수의 클럽 공연과 페스티벌에서 그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무대 위에서 서커스 광대처럼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오리엔탈 쇼커스'를 비롯해 하드록과 헤비메탈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선보이는 실력과 밴드 '베드렘', 다양한 이들의 감성을 노래하는 '감성골목', 새 이름으로 활동에 나선 '포장마차' 등이 21일 공연을 책임진다.

이어서 22일 두 번째 날에는 오랜 시간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밴드 크라잉넛이 '인디 페스타 밴드 온'을 찾는다. 크라잉넛은 90년대 '말달리자' 이후에도 꾸준히 '밤이 깊었네', '룩셈부르크', '명동콜링' 등 여러 명곡을 발표하며 음악성을 크게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브라스 위주 사운드로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 '킹스턴루디

스카', 희망과 긍정을 노래하는 밴드 '넵버넬코리아인', 강력한 기타 사운드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기 로망스',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매시업해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한다두'가 출연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 관련 더욱 자세한 정보는 종로문화재단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객과 호흡하는 무대를 만나기 어려운 요즘과 같은 때 찾아온 단비 같은 온라인 공연"임을 강조하면서 "공연이 주는 에너지와 기쁨을 맞출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탐방 맛집'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 급부상

금천구 시흥1동에 있는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탐방 맛집'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서대문구청 도서관정책팀이, 올해에는 5월 서대문구 문화재단, 11월 양천구 주민자치회가 우수사례 탐방을 위해 방문했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것은 2020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우수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과정이 각종 보도 매체와 이용주민들의 개인 블로그 등 SNS에 소개되면서부터다.

시흥1동주민센터 5층에 위치한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그동안 다름을 존중하는 상호인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운영해왔다. 또한 다양한 장소 개발은 물론 수준 높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주민들의 지적 욕구를 해소에 앞장서 왔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은 '채우고 비워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누리자'라는 의미의 채비누리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매주 주제에 맞춰 선정된 책을 읽고, 각자의 내면을 돌아보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책과 미술을 접목한 '채비누리-미술편'을 운영했고, 올해 10월에는 책과 음식을 접목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치유하기 위한 '채비누리-식물편'이 진행됐다.

그 외에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여라 지구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독창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맑은누리 작은도서관'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강원도 크리스마스 소비주간, 강원장터 고객감사 경매 이벤트

강원도가 오는 12.20부터 22까지 3일간, 오후 5시부터 6시 30분 사이 유튜브 채널 '강원장터TV'를 통하여 '2021 강원장터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강원장터 온라인 경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 이벤트는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였던 상품 중 인기상품과 도내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선별하여 꾸러미로 구성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12.18~12.26)' 중에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매상품은 10만원에 상당하는 꾸러미별로 매일 40개씩 판매되며 경매참가자는 유튜브 채널 '강원장터TV' 채팅창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경매 참가자들에게는 참여

인증샷과 댓글 이벤트를 통하여 푸짐한 경품도 제공된다.

'경매 이벤트'를 통하여 참가자는 도내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으며 특히 경매 수익금의 복지기관에 전액 기부 될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강원장터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였던 상품 중 인기상품과 도내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선별하여 꾸러미로 구성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12.18~12.26)' 중에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단순 경매가 아닌 소외계층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이벤트'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강원 로컬벤처기업'에 펀드자금 집중투자

강원도가 청년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야심차게 시작했던 '강원 로컬벤처기업'의 성공 운영 지원을 위해 펀드(투자조합)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소풍벤처스와 펀드(투자조합)를 조성·운영 한다.

이번에 조성된 펀드는 1단계로, 올해 2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내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40억 원 규모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투자금 20억 원은 총 10억 원, ㈜소풍벤처스와 민간투자자 등이 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12월21일 투자조합 결성총회(비대면)를 개최, 연내 투자조합 등록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추가로 확보할 투자금 20억 원은 현재 2~3개 민간기업과 출자협의를

진행 중으로 기업 내에서 출자심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펀드 운용은 강원도 소재 유일한 전문투자사인 ㈜소풍벤처스가 맡게 되며, 추가 출자한 금액(10억 원)의 2배인 최소 20억 원 이상을 도내 로컬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 투자생태계가 기술기반 기업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로컬벤처기업은 상대적으로 투자에서 소외되었는데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로 로컬벤처기업에 투자금의 물꼬가 트이고 강원도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로컬벤처기업 이외에도,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중소·벤처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농식품 산업 분야의 창업 기업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원/기자

조성된 투자금은 신속하게 집행되어 로컬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빠르게 해소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해 2년 이내에 투자금의 80% 이상을 기업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강원 로컬벤처기업 등 도내 기업에 최대한 많은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수 로컬벤처기업 발굴 등 강원도-창조센터-(주)소풍벤처스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백창석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로컬벤처기업에 단비가 될 것이다”며 “도내 많은 로컬벤처기업이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도내 정착에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구매 물품 지역아동센터 전달...다음 주자 거제시 지목

김해시는 지난 17일 「함께해요」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온라인 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다음 캠페인 참여 주자를 지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해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경남은행 'BNK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과 병행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구매 물품은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김해시는 현재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인 '동네시장 장보기'도 이용하여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에는 외동·삼방·동상시장의 10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각 시장의 반경 2km 이내 지역은 온라인 주문을 통해 2시간 이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김석기 부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다음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거제시를 지목했다.

최광용/기자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예정.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 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의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거쳐 남양주 48만3천㎡, 화성 8만2천㎡ 용인 7만㎡ 등 총 63만5천㎡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천㎡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천㎡, 북부 153만9천㎡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뒀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조혜영/기자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와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가 몽쳐 대중교통비 최대 70% 절감, 시민체감도 UP

부천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웰린지 참여기업인 데이터라이언스(주)와 협업체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 알뜰교통카드(도보, 자전거 등)와 함께 '공유전동킥보드(킥고잉)·공유전자전거(일레클)·공유차(위굴리)·주차공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합 환승을 통한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탄소배출저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 15일 지급대상자부터 마이리지 적립 조건을 확장해 시범운영중이다.

금번 시티패스 마이리지 혜택 개선의 주요 내용은 마이리지 제공 기준을 기존 최대 20%에서 40%인 두 배로 확대하였으며, 기존 대중교통과 공유교통수단 간 환승 적용 시간을 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결제수단 범위도 시티패스 포인트 결제(충전을 통한 선불)에서 신용카드 결제(후불)까지 확대하였다. 스마트 시티패스 앱(교통서비스)에서는 이외에도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한 교통소통정보를 반영한 최적경로 안내서비스, 시티패스 포인트 충전을 통한 통합 결제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한다.

한편, 부천시는 국토교통부(도시

경제와 과장 신호등)와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부천시가 목표하는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누리는 스마트도시'구축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더욱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당첨된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시티패스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이용 확산으로 탄소 절감효과까지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용민/기자

충청북도, 2021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성료

48개 기업 참여 383건
4,999만 달러 수출상담

충청권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대전·충남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2021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충북C&V센터 및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기업들의 열띤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박람회는 3개 시·도(충북·대전·충남)가 순번제로 추진하며 올해는 충북도가 주관해 시·도별 각 16개사씩 총 48개사가 참가했다.

식기공품, 바이오·의약품, 환경·생활용품, 전기·전자제품 등 다양한 충청권의 우수 제품을 베트남 현지 구매자에게 선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 이번 박람회는 수출실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획으로 변화를 꾀했다.

먼저 4일간 진행된 화상상담회는 기업 수요에 따라 충북C&V센터에 마련된 화상상담회장 또는 각 기업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박람회 기간 동안만 제품전시가 진행되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온라인 전시의 이점을 살리고자 지난 7월부터 '알리바바닷컴', '트레이드코리아' 등 글로벌 B2B(기업대기업)플랫폼에 입점해 약 6개월 간 상시적으로 제품 판매를 진행했다.

또한 각 기업별 제품소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고정화/기자

충남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대급 수확

올해 총 26건 5347억원
선정, 국비 616억원 확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충남도 내 17곳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선정된 사업만 총 5300억여 원대로, 이 같은 성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4곳과 도시재생예비사업 13곳이 선정돼 국비 20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1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지방비 및 부처연계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469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상반기에 선정된 9곳을 포함하면 올해에만 총 26곳 국비 616억 원을 확보했으며, 매칭 지방비 및 부처연계, 민간투자, 별도 지자체사업비 등을 합하면 5347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올해까지 29곳이 선정되며, 내년까지 각 사업에 국비 50%를



보조반아 총 62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성과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시군에서 준비 중인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시군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험 부족으로 발생했던 격차 문제를 해소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동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하반기 선정된 17곳과 사업을 진행

중인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4곳은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아산시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SPace@DOGO' △부여군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 △서천군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 13곳은 아산 3곳, 서천 2곳을 비롯해 천안, 공주, 보령, 논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각 1곳씩이다.

최정근/기자

대덕특구 - 연축지구 연결 교량 건설, 대전시 내년 첫 삽 뜬다

대전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덕특구 동축진입로 개설공사 기본설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전시가 국도17호선(신탄진로) 교량량 분산, 갑천으로 단절된 유성구, 대덕구 연결, 대덕특구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2013년 구상을 시작한 사업이다. 이후 2016년 국가계획에 반영되었고,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면서 국비보조사업(45%)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845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교량 1개소(약 560m)를 포함한 1.3km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2022년 1월까지 기체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이번엔 확보한 5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하고 연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대덕특구 동축진입로는 하수처리장 이전 적지 및 연축지구를 갑천여 접근성을 개선으로 관련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올해 국가계획에 반영된 비례동-와동,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 사업의 교통수요를 증가시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지네거리에서 엑스포로, 아리랑로, 대전로를 경유해 연축지구까지 가려면 통행거리가 약 5km인데 비해 대덕특구 동축진입로를 이용하면 약 1.4km로 짧아지는 물론 도심 혼잡구간을 이용하지 않아 통행시간이 70% 이상 단축된다.

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본 도로 개설로 통행시간 절감 등에 따라 향후 30년간 약 203,413억 원에 해당하는 편익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분석됐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로 신설의 효과 외에도 지역 화합, 주변 개발사업 촉진 등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조속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새로운_

자치분권의 시작

#광고_

경기도의회_신청사

